

일본의 제품안전 관리체계 어떻게 운영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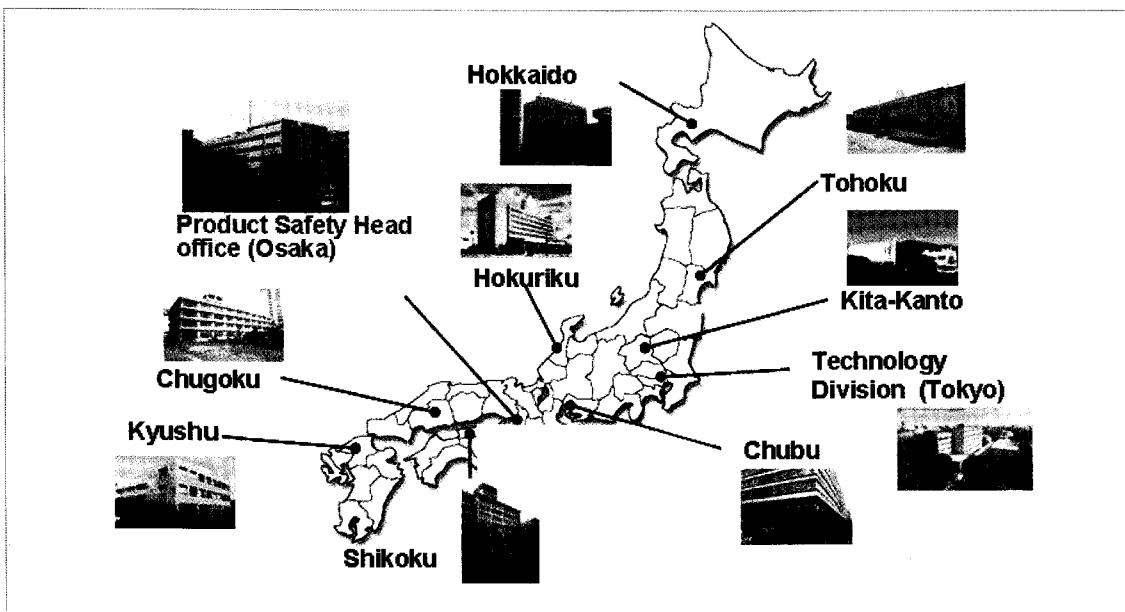


배진한 연구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정부기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MITE)에서 발표한 위해정보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정부기구 및 관련체계
경제산업성(METI)은 법률 및 안전기준 운영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는 안전정책개발 등 경제산업성의 제품안전 분야 Think

Tank 역할 및 안전기준 개발, 위해제품 시험·분석, 리콜 등 행정집행과 시장감시 업무 등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제품 안전, 바이오기술 개발, 화학물질관리 및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ITE 본원 및 지방사무소

NITE는 기능별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30명의 직원 중 약 150여명이 제품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소인 오사카와 동경에 90명이 분야별 사고분석 업무와 경제산업성과의 업무협력을 담당하

고 있으며 지역에 8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제품사고 정보수집, 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원인 분석기술 개발, 제품사고 관련 사업자(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입회검사, 제품사고 다발 제품에

구분	본소(오사카+동경)	8개지소
직원	90명(분석요원 : 35명)	60명
주요 업무	- 분야 사고분석 - 경제산업성과 업무협력	- 지역별 특화된 4개지소 육성 (중부 : 전기, 구주 : 기계, 북북 : 화학, 북간동 : 연소) * 여타 4개 지소는 동향분석 및 정보수집

대상제품	소관법률	소관부처
소비생활용품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용품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기기	액화석유가스 보안확보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 소관 법률 외 생활제품도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예 : 컬러렌즈의 부작용, 가정용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등)

대한 안전규격 및 기술기준 제·개정 제안, 사고정보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제품안전 홍보 등 기본법 성격의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액화석유가스 보안 및 거래법」, 「가스사업법」, 「전기용품안전법」등 4종의 법률에 규정된 안전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고와 ②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것, ③ 원인불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분류하여 사고정보를 DB화하여 사고원인별, 제품구분별 등으로 분석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고정보 총 건수 : '07년 6,024건, '08년 4,787건, '09년 3,969건, '10년 4,568건

일본의 사고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 일본의 사고정보 수집 주체 |

중대결함에 대한 사고정보 수집은 소비자청 ('09년 경제산업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치는 경제산업성과 NITE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대결함에 대한 사고정보의 경우 NITE에서 수집하고 있다.

NITE는 전국 9곳의 소비생활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하고 있으며, 제품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 환기용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NITE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거론됨에 따라 사업자가 NITE에 사고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 제품사고정보에 대한 DB화 및 분석(NITE) |

일본 NITE는 사고원인에 따라 ① 제품으로 인한

사고정보 분석내용

• 2007년 ~ 2009년 까지 3년간 사고정보 14,451건

분석결과임

- '07년 : 7,298건(5,949건)

- '08년 : 5,440건(4,590건)

- '09년 : 4,371건(3,912건)

* ()는 중복정보나 수집대상의 정보를 제외한 건임

| 사고 정보의 정보원별 수집 건수 |

2007년도에 중대 제품 사고 정보 보고제도가 강제 확립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사고가 정리되어 2007년 2008년에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에따라 2007년에는 한개 제품의 리콜만으로도 1,000건 이상의 보고가 있었다.

정보원별 사고 정보 총 수집 건수

정보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제조사업자 등	3,055건	41.9%	2,140건	39.3%	1,853건	42.4%	
자치단체(소방기관 포함)	418건	5.7%	332건	6.1%	297건	6.8%	
소비생활 센터 등	788건	10.8%	832건	15.3%	846건	19.4%	
국가 기관	중대제품사고정보	1,169건	16.0%	1,400건	25.7%	1,166건	26.7%
	그 외	69건	1.0%	169건	3.1%	96건	2.2%
소비자	소비자	283건	3.9%	232건	4.3%	67건	1.5%
	그 외	79건	1.1%	32건	0.6%	33건	0.8%
	소계	5,861건	80.4%	5,137건	94.4%	4,358건	99.8%
신문 정보 등	1,437건	19.6%	303건	5.6%	13건	0.2%	
합계	7,298건	100%	5,440건	100%	4,371건	100%	

| 사고정보의 제품 구분별 수집건수 |

제품 구분별 수집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용 전기 제품”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연소기구”의 경우 관련기준 강화로 매년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09년 “눈썹고데기” 한 품목에 약 100건의 사고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변용품이 ‘07년 이후 급감한 이유는 ‘07년 피부장애를 일으킨 한 품목에 약 1,000건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 품목별 사고정보 수집건수 |

품목별로 사고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까지 가장 많았던 “전자 레인지” 355건으로, 문의 개폐시의 접촉 불량에 의하여 스파크가 발생하는 등 “제품에 기인하는 사고”가 약 300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콘로”, “전기스토브”, “가스목욕탕보일러”는 매년 사고가 많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사고가 2,401건으로 제품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전기제품”은 “제품에 기인하는 사고”, “연소기구”는 “제품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가 각각 많은 경향이 있음

| 제품 구분별 사고원인 분석 |

가장 사고가 많았던 제품은 “가정용전기제품”으로 전체의 45%(4,877건)이며, “설계,제조 혹은 표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의 사고원인이 가장 많아 4,877건 중 1,944건(40%)를 차지하고 있다.

‘09년 “제품에 기인한 사고” 349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설계, 제조 혹은 표시 문제로 인한 사고” 188건으로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전기스토브 등이 리콜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사고정보가 많았던 “연소기구” 2,362건은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91건으로 55%를 차지하였으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사고 원인별 피해상황 분석

- 사망이나 중상 등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및 화재 등이 포함된 확대피해는 제품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사고원인이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많음
- 제품파손은 제품에 기인한 사고의 설계, 제조 혹은 표시 등에 문제가 있었던것에 많음

| 사고원인 구분별 사고정보 분석 |

제품에 기인하는 사고가 전체의 53%인 5,81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해 정도에 따라 중대사고가 843건(사고원인 불명확한 261건 제외), 비중대사고가 4,974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사고 원인에 따라 구분해보면, 설계, 제조 또는 표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3,968건으로, 전체 제품에 기인한 사고 전체의 80% 차지하고 있다.

제품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는 전체 29%인 3,12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